

##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

박 영 신<sup>†</sup>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정 월평균수입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 세 지역을 가정방문하여 학생들을 무선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190명(남 83, 여 107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가 제작한 어려움극복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 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월평균수입의 60배, 학업성취수준의 3배, 자기효능감의 약 2배나 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은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가정 월평균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30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가정 월평균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0배 정도 되었다. 넷째, 가정 월평균수입은 청소년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었다. 다섯째, 사회계층과 학교급별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으나 정서적 지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또한 대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행복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밝혀 주었으며, 단순히 부자들만이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한국 청소년, 행복,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가정 월평균수입, 사회계층지각, 학교급별

\*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6년 1월 14일) 369회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방송을 위해 모았던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학생 데이터만을 추려서 재분석한 것이다.

\*\* 이 연구는 2009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우리 사회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성인들 경우에, 자녀교육 때문에 예컨대 선진국의 더 좋은 교육제도 속에서 자녀교육을 잘 하기 위해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교육을 위해 투자이민에 대한 상담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장우석, 2007. 12. 11).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민의 이유로 생각하는 더욱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환경이, 이민만 가면 그렇게 쉽게 제공되는 것일까를 질문해 보게 된다.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선진국의 교육환경이 한국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민을 가서 많은 사람들은 생계와 자녀교육비 등을 위해 맞벌이로 새벽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자녀와 교육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새로운 문화 적응에 허덕이며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교육비를 제공하기만 하면, 자녀는 선진국의 보다 나은 교육제도 속에서 건전한 인성을 형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리 쉽지 않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시간적 심리적 여유 없이 낮은 환경에 던져져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응하거나, 적응하여 성취를 이루더라도 타인의 입장을 따스한 시선으로 배려한다든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민을 가서 크게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 청년 이형진(SBS, 2008)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형진군은 미국 2만 6천개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을 뽑는 웬디스 고교 하이즈먼상(Wendy's High School Heisman Award)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했고, 미국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SAT)과 대학입학시험(ACT)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USA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의 고교생 20인에 선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제헌 60주년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되어 국회의장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교포 2세의 신화 뒤에는 이민 1세대 한국인 토착심리를 지닌 부모가 있었다. 아버지는 28년 전에 대기업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사람으로, 3-4시간 자고 일하며, 신경안정제를 6개월 동안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했다. 어머니는 고교시절 매일 자녀를 데리러 다니며, 시간이 부족했던 아들을 위해 모든 헌신을 다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어머니의 교육열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부모의 뒷받침 덕분에 이형진이 외적으로 대단히 인정받는 성취를 하였지만, 아버지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고, 부모로서 한국인의 따뜻한 감명을 전해 줄 수 없어 죄책감”이 있음을 가슴 아파했다. 어머니도 예일대를 우수하게 다니는 자녀가 매우 자랑스럽지만 부모자녀관계에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대화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정을 자녀와 진정으로 나누지 못하는 공허함과 같은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은 부모만이 아니라 이형진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친구들을 보며 부러운 것은 5분 내에 부모와 농담하며 모든 얘기들을 할 수 있으나, 나는 10분에 한 가지도 깊게 이해가 안 된다. 진화를 해도 부모님이 계속 ‘뭐라고?’ 라고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래서 부모와 통화한 뒤는 운동을 못한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운동이다. 한국말로 하는 것이 진땀이 난다”는 이형진의 마음

도 매우 쓸쓸하다. 그것은 단순한 영어와 한국어 단어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전제하는 가정과 함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홀로 서기 연습을 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이민 1세대 부모만이 아닐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세대간의 의식차이가 문화 차이 수준으로까지 그 간격이 커지고, 점차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지게 되면, 이형진의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처럼 “자녀가 집에 오면 손님, 왔다 가면 섭섭하고 나가 있으면 허전” 할 것이다.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물가시대 생계의 안정과 자녀를 위한 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한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너무 바빠서 자녀와 대화시간의 부족과 소통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되며, 이에 따라 청소년 자녀들의 삶의 질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경제적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자녀를 위한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해 줄 겨를이 없고,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상태로 지내는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시간적 여유 없음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무관심이나 방관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 부모들의 자녀와 대화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3.81시간 정도 되었지만, 고등학생은 1.21시간에 불과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0). 대학입시를 앞둔 고 3 시

기에는 부모와 대화시간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목표를 위한 수단이, 본질적인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물론 경제적 요인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필요조건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a)이 자유반응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인을 들었으며, 삶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으로도 경제적인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부гат집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자녀가 행복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부모가 43억원 로또에 당첨이 되어 자녀에게 고급 승용차도 사 주고 사용할 수 있는 풍족한 돈을 주었지만, 학교에서 ‘로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따돌림을 당하게 됨으로써, 돈으로 입학했을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결국 자녀가 좋아하던 운동선수의 길까지도 포기하고, 무기력한 삶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SBS, 2006).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돈과 같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변하여 남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깝게 믿고 지내던 사람들로 인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 물질로도 대신 치유되기 어렵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성인의 행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와 같은 변인들로 구성된 행복 모형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이 아니었다.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4~5배가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적 성취와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각각 2배가 되었다. 특별히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성인의 행복이 경제적 자원보다는 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 및 직업성취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검증한 것은 성인의 행복에 관한 모형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의 행복을 검증하기에는 변인 구성 등의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복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타당도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은 어떠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즉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 정서적 지원과 같은 관계적 자원 및 학업성취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가정 월평균수입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의한 영향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Park과 Kim(2004)은 선행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심리적이고 관계적이며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

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및 학업성취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더불어 사회계층과 학교급별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모형 1로 하였다. 그리고 모형 2는 모형 1의 대안모형으로서 1개의 변인 즉 월평균 수입 변인을 제외함으로써, 여기에서 연결된 4개의 경로선이 제외됨으로써, 모형 1보다 훨씬 간명한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즉 월평균 수입 변인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평균 수입에서 정서적 지원, 학업성취,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들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간접적인 경로들도 모두 제외되었다. 모형 2는 모형 1보다 훨씬 간단한 대안모형이기 때문에, 두 모형간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만약 모형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간단한 대안모형이 청소년 행복의 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를 통해 가정 월평균수입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부한 부잣집의 자녀가 가난한 집의 자녀보다 더 행복한가를 알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적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 성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에서도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행복수준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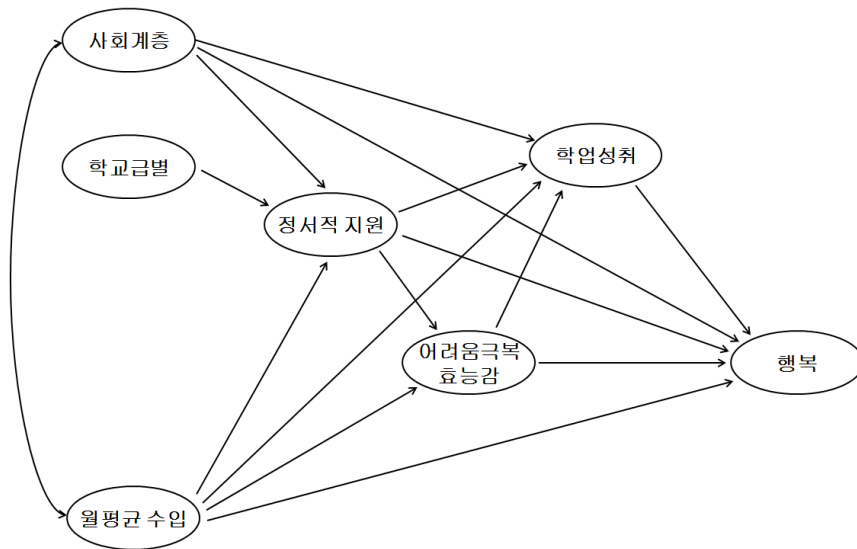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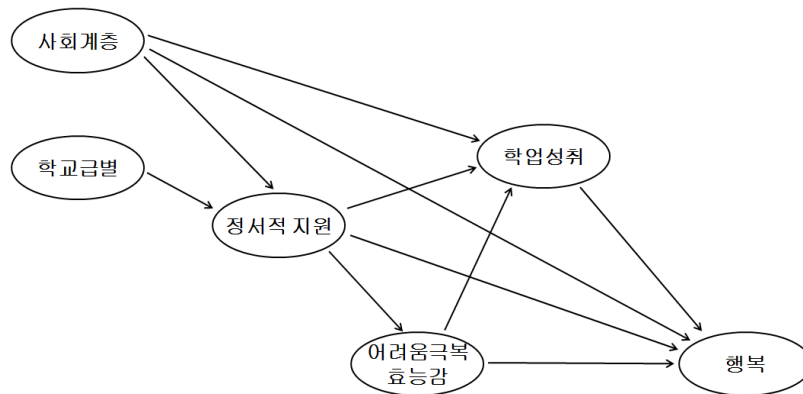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2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비교 외에, 두 모형을 통해 공통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관심은 아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행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영향이다.

인간관계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2002)이 대학생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행복은 관계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행복한 아이의 특성으로서 “친구가 많은, 가족의 사랑을 받는, 주변사람의 관심을 받는”과 같은 관계적 특성들이 전체 응답의 41.9%를 차지했다. 또한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으로서 “가정이 화목한, 원

만한 대인관계, 많은 친구, 이성친구 있는, 의지할 사람 있는, 주변인의 신뢰와 관심을 받는 것”과 같은 관계적 특성들이 전체 응답의 41.1%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다른 특성보다 관계적 특성은 행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은국(2007)은 대학생들이 과거 10대와 현재 20대 및 미래 30대 이상에서 연령대별로 자기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순서대로 적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에 관련된 생활경험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인간관계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10대에서는 응답자의 49%가, 20대에는 31.4%가,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친구/인간관계에 관련된 생활경험을 지적하였고, 다른 생활경험에 비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30대와 40대에서는 친구/인간관계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으나, 그 대신 가족의 비율이 늘어나서, 40대에서는 가족의 화목이나 건강 및 자녀의 성장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생활경험이 57%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친구든 가족이든 대상이 바뀌었을 뿐 결국 모두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은국(2007)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행복에 관련된 생활경험으로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a)의 연구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이라든가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범주를 지적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경제적인 요인 및 자기조절과 더불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위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정서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한 측면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에게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변인임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에서 누적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박아청(2007)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 환경 통제력, 낙관성, 자아탄력성, 따뜻한 대인관계, 가족과 주위의 사회적 지지, 자기표현성 및 종교적 신앙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아육성을 위한 교육의 부실, 따뜻한 인간관계의 부재, 꿈과 미래가 없는 학업생활 및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기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학교환경을 지적하였다. 박아청(2007)이 지적한 따뜻한 인간관계는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박영신, 김의철과 김묘성(2002)이 한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도움은 정서적 지원이었다. 이러한 정서적인 지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b).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은 선행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정리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b). 즉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나 형제자매관계, 학교에서 교사학생관계와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인간관계 중에서 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제공할수록 자녀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만이 아니라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서 정서적 지원은 중요한 하위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스트레스나 우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 심리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하였을 때나, 대학생의 스트레스(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 2009)와 우울(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개인이 주위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나 우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행복에 접근해 나가는데 도움이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임을 보여준다.

둘째는 행복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이다.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Bandura(1997)가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많은 서양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검증되어 왔다. Bandura(1997)는 인간의 효능적인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변인이 인간의 행복이나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예측할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에 대해 취약하거나 쉽게 우울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개인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나, 행복감 정도에 차이가 있다. 만성 질병의 하나인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20%의 질병 진행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9%의 질병 진행률을 보였다. 이러한 병의 생물학적인 진행이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방문한 횟수도 43%나 감소하였고, 고통도 거의 20%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Holman & Lorig, 1992; Lorig, 1990).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이 적음을 보여준다.

인간관계와 행복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b).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의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의미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토대하여, 청소년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과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으로 지칭되는 긍정심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특성은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Min, Park & Kim, 2002).

행복과 같은 긍정심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확인하였다. 한국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켰으며,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 2009). 뿐만 아니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우울 증상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스트레스 관리행동보다 더 결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더욱 잘 극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는 행복에 대한 학업성취의 영향이다.

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여러 발달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장휘숙(2009)이 성인 초기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한 수준에 따라 행복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이 경로분석을 한 결과도 직업성취도는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취는 행복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의 성취 중에 학업에서의 성취가 대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의 중요성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김의철, 박영신, 2008), 모두 긍정적인 결과와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건은 학업에서의 실패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또한 학교의 성취경쟁에서 밀려나는 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고 일탈행동의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학교가 학업성취경쟁에만 매달리는 사이, 무관심의 저편에서 교육적인 돌봄이 결여된 채 일탈행동으로 젖어들고 있는 학생들이 성취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학업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학생의 개인 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업에서의 성취가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행복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을까에 초점을 둔다. 최근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의미 있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BS, 2006).

높은 학업성취가 행복감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학력을 중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토양이 이러한 인식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분석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를 보면, 학업성취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인식은 다른 문화적 토양에서와는 구별되는 토착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박영신과 김의철



(2008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올라가고, 나아가서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되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자녀의 학업충실과 성실 및 순종, 그리고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할수록, 부모의 효능감이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학업에 대한 충실과 학업적인 성취가 신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는 정서적 지원이나 학업성취가 사회계층이나 학교급별에 의해 받는 영향이다.

초 중 고 대학생으로 발달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학교급별로 경험하게 되는 생활환경과 자극이 매우 다르다. 초 중 고 대학생의 학교급별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모 및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6b).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에서의 차이만이 아니라, 학교급별로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 그들이 받는 사회적 지원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오경희(2008)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지원활동을 면담한 결과, 부모들의 자녀교육 대응방식은 자녀의 성적과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계층별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최근의 자료가 있다(조선일보, 2009, 7, 22). 서울 강남의 A고와 강북 B고에서 2008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생 수를 비교하였을 때 강남의 고등학교가 1.6배였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 수능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부모의 소득이 높은 집단의 자녀들이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수리영역 모두에서 현저하게 높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결국 ‘개천에서 용 나던 신화는 끝나고 소득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사회계층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일혁, 2006). 또한 일반 중고등학교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청소년 자녀의 이탈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학업성취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류방난과 김성식(2006)이 교육격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의 모형 1과 모형 2에 제시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이 가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검토 및, 각 변인들의 행복과 관련된 경로계수와 효과계수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들로서 경제력과 더불어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과 같은 통제감의 중요성,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가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좋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자기 스스로는 효능감을 지니며,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특별시내의 세 지역에서 무선 표집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최상류층 또는 상류층 표집을 위해, 강남구 도곡동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중류층 표집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시민들이 거주하는 개인주택가에서 하였다. 하류층 및 극빈층 표집은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달동네로 알려져 있는 판자촌 지역으로 하였다. 세 지역에서 각각 100명의 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세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 실시를 부탁하였는데, 총 192명이 표집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뒷면의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명과, 소속이 대학원생이 1명 포함되어, 2명을 제외하였다. 2명을 제외한 총 190명의 표집 학생 중에서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포는 강남구 도곡동 49명, 은평구 불광동 62명, 관악구 신림동 65명이었다. 세 지역 학생 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고루 표집대상이 분포하였다. 비록 이 세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 실시를 하였으나, 본인의 실제 거주지역이 다른 동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4명 있었다. 이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했거나,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14명이 처음에 의도한 세 지역이 거주지가 아니었지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이 세 지역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표집하기 위해 대표적인 세 지역을 표집하였기 때문이다.

총 190명의 분석대상을 학교급별 및 성별로 정리하였다. 학교급별에 대한 무응답이 3명이었고, 187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3명(남 5, 여 8), 중학생이 55명(남 22, 여 33), 고등학생이 78명(남 34, 여 44), 대학생이 41명(남 20, 여 21)으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83명, 여자 107명으로 큰 차이 없이 분포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 분포는 11세에서 29세였다. 연령 평균은 17.27세이었으며(표준편차, 3.33), 연령의 중앙치는 17세, 최빈치는 18세였다.

분석대상의 학업성취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은 성취(6.3%), 약간 낮은 성취(16.8%), 보통(42.1%), 약간 높은 성취(27.4%), 매우 높은 성취(6.3%), 무응답(1.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간이 약 반에 가깝고, 약간 높은 성취가 약간 낮은 성취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이 거의 정상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포부수준은 고 졸(4.2%), 대 졸(61.6%), 대학원 석사 졸(7.9%), 대학원 박사 졸(6.3%), 유학(17.4%), 무응답(2.6%) 이었다. 그러므로 대졸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및 유학에 대한 높은 학업포부수준을 나타내었다.

사회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류층(6.3%), 중류층(76.3%), 하류층(15.3%), 극빈층(1.1%)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중류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최상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와 거의 마찬가지로 극빈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에 불과하였다. 한편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평균은 4,774,500원, 중앙치는 300만원, 최빈치는 200만원이었다. 분석대상자 가정의 최소 월수입은 35만원, 최대 월수입은 7,000만원이었다.

#### 측정도구

이 연구의 질문지에 포함된 배경정보 난에서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교급별, 월평균 수입, 학업성취도, 사회계층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거주지역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각자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교급별은 초·중·고 대학생 중에서 답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가족 전체를 합해서 가정의 월 소득을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매우 낮은 성취에서 매우 높은 성취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중에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다. 사회계층은 최상류층에서 극빈층까지 5단계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제작되었다.

배경정보 외에 3개 척도가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정서적 지원 척도는 김의철과 박영신(1999b)이 제작한 6개 문항 중에서 4개를 선별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를 들 수 있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더욱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서적 지원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7이었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1995)의 어려움 극복효능감을 번역하여 5개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 예는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를 들 수 있다. 답지는 ‘전혀 잘할 수 없다, 약간 잘할 수 없다, 약간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매우 잘할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움 극복효능감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3이었다.

행복 척도의 15문항은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김의철, 박영신, 2004, 2006b; 박영신, 김의철, 2006a).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를 들 수 있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3 으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행복 척도에서 0에서 4로 표시된 답지는 1에서 5로 재코딩되었다. 따라서 3점이 보통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 척도의 신뢰도를 볼 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 실시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제작된 질문지는,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에 의해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들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모여 사는 세 지역의 주민들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방문하는 가정은 집 주소에 기초하여 무선추출되었다.

낮에 방문해서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정방문을 하였다. 방문한 가정의 벨을 누르고 나서 먼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서 현장 취재 목적으로 찾아왔음을 밝혔다. 그래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는 질문지 실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협조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일단 대문을 열어주면, 2006년 1월 14일에 곧 방영하고자 하는 제 369회 프로그램인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제작을 위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응답 결과는 즉시 분석되어 1월 14일에 방영될 예정임을 알려주면서 간곡히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동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하는 경우에 SBS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지에 각자 응답하였으며, 응답이 끝날 때까지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 결 과

### 거주지역별 성별 행복의 차이

이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 1과 모형 2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변인들이 오차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오차변인으로 거주지역과 성별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별로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모형 검증하기 이전에 검토하였다.

거주지역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거주지역별 행복의 차이를 변량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각 하위집단별로 보면, 강남구 도곡동 지역(N=49, M=3.63, sd=.58) 은평구 불광동 지역(N=60, M=3.57, sd=.50) 관악구 신림동 지역(N=65, M=3.51, sd=.54)의 평균값이 유사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세 거주지역의 학생들 간에 행복 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71, p>.05$ ).

성별에 따라 행복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행복의 차이를  $t$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자(N=82, M=3.49, sd=.50)와 여자(N=105, M=3.61, sd=.56)의 평균이 비슷하였다.  $t$ -검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은 행복 지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7, p>.05$ ).

따라서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지, 중산층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지, 판자촌 달동네 지역에 살고 있는지와 같은 거주지역 자체는 학생들의 행복지각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행복 지각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거주지역이나 성별 변인은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두 변인이 오차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거주지역별로나 성별로 행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형 1과 모형 2를 검증함에 있어, 이러한 변인들로 인한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을 거주지역별로나 성별로 각각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주지역별과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 없이, 모아진 190개의 분석 데이터 전체를 갖고 모형 1과 모형 2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형 1과 2에 대한 검증 이전에, 우선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행복은 5점 척도 상에서  $M=3.56(sd=.53)$ 으로서, ‘보통’에서 ‘약간 행복하다’ 사이에 위치하였다.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M=3.11(sd=.98)$ 이므로, ‘보통’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의 평균은  $M=3.33(sd=.72)$ 으로서, ‘보통’에 가까운 평균값을 보였다. 정서적 지원의 평균은  $M=3.83(sd=.75)$ 으로서, ‘보통’과 ‘약간 지원을 받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대한 집중경향치는  $M=477.45$ ,  $Md=300$ ,  $Mo=200$ 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평균값은 약 477만원 정도였지만, 전체 분포에서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수입은 300만원 정도 되고, 실제로 응답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상위 집단의 월평균 수입이 높아서 약간 편포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은 총 190명의 분석대상 중에서 초등학교생이 6.8%, 중학생이 28.9%, 고등학생이 41.1%, 대학생이 21.6%이었으며, 무응답이 1.6%였다. 분포를 보면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초·중·고·대학생이 빠짐없이 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계층의 분포는 극빈층 1.1%, 하류층 15.3%, 중류층 76.3%, 상류층 6.3%이었고, 무응답이 1.1%였다. 그러므로 1/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류층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상류층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극빈층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비율을 보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구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행복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정서적 지원은  $r=.65$ 로서 다른 변인들보다 가장 높은 매우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리고 행복과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상관도  $r=.3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행복은 사회계층과도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학교급별과는 낮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학업성취 변인의 경우는 행복과  $r=.30$ , 사회계층과  $r=.25$ 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과는 모두 무상관을 보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 변인도 행복과  $r=.42$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지원과  $r=.25$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과는 무상관이었다.

정서적 지원 변인은 행복과 최고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외에도, 사회계층과  $r=.22$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학교급별과는 상관의 강도가 낮기는 하지만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행복	학업성취	어려움극복 효능감	정서적 지원	가정 월평균수입	학교급별	사회계층
행복	1.00						
학업성취	.30***	1.00					
어려움극복효능감	.42***	.09	1.00				
정서적 지원	.65***	.11	.25***	1.00			
가정 월평균 수입	.04	.15	.05	-.06	1.00		
학교급별	-.16*	-.03	-.01	-.18*	-.21*	1.00	
사회계층	.28***	.25***	.09	.22**	.11	-.18*	1.00

\*  $p < .05$ , \*\*  $p < .01$ , \*\*\*  $p < .001$

가정의 월평균 수입 변인은 행복과 무상관이었고, 사회계층과 정적인 관계였으나 상관의 강도가 낮아 거의 무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본인이 속하는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을 가정의 월평균수입과 크게 연관 짓지 않고 반응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보다는 예컨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등 다양한 변인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 월평균 수입이 학교급별과는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연구의 표집대상들 중에서 나아가 든 학생들의 가정이 어린 학생들의 가정보다 전반적으로 가정 월평균 수입이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학교급별 변인은 행복, 정서적 지원, 가정 월평균 수입, 사회계층 변인들과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될수록 행복하지 않고,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가정 월평균 수입과 사회계층과의 부적 상관은 표집 집단별 경향성이므로, 해석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회계층 변인은 행복, 학업성취 및 정서적 지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일 수록 더욱 행복하고, 학업에서 성취하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시사된다.

#### 경로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

모형 1(그림 1 참고)을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제안한 변인들 중에 다른 변인들은 모두 검증모형에 포함되었으나, 월평균 수입 변인은 검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서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학업성취 및 행복으로 연결되는 4개의 경로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 정도가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 지각 정도, 어려움극복효능감 수준, 학업성취도, 행복 수준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월평균 수입에서 연결되고 있는 4개의 경로

선이 제외된 이외에, 그림 1에 제안한 경로선 중에서 추가로 제외된 경로선은 1개였다. 즉 사회계층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경로선이 제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총 5개 경로선이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되고, 검증모형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과가 그림 3이다. 그림 3에 제시된 검증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구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매우 양호하였다(GFI=.997, AGFI=.979, NFI=.990, RMR=.015,  $\chi^2=.498, p>.05$ ).

행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로선들은 3개였는데, 그 중에 정서적 지원의 경로계수가  $p=.541$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이고, 학업성취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정서적 지원은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해서도 높은 정적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행복감은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려움극

복효능감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에도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즉 정서적 지원이 직접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진되어, 증진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감을 향상시키므로써, 정서적 지원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은 사회계층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학교급별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경로계수가 나타났다. 즉 상류층의 자녀들일수록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보다는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욱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업성취는 사회계층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비록 사회계층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삭제되었으나, 사회계층에서 학업성취를 통해 행복으로 연결됨으로써, 사회계층이 행복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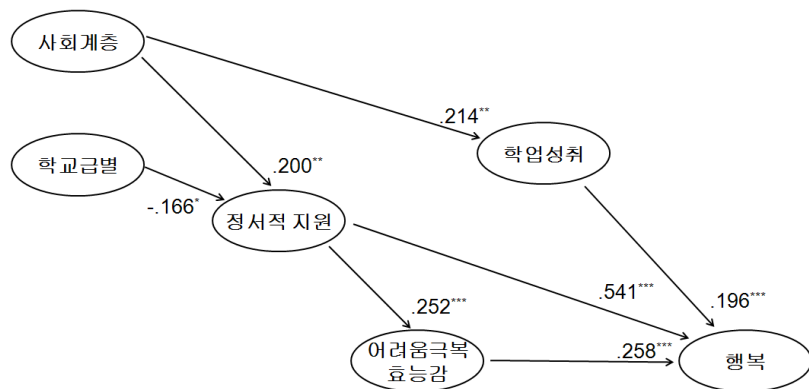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1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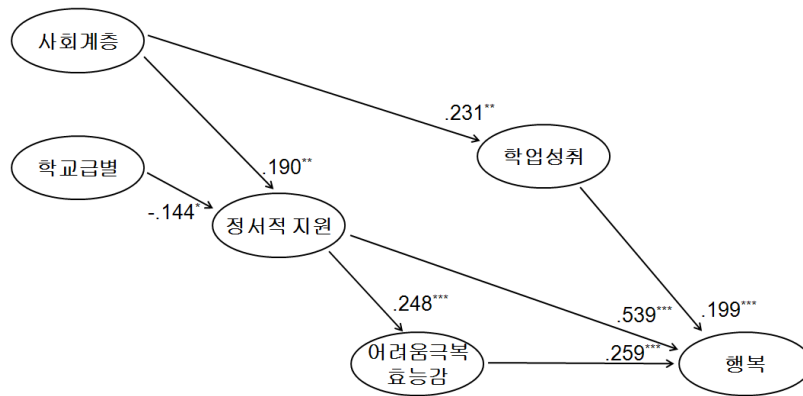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2 검증

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그림 2 참고)를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그림 4를 보면, 그림 2에 제시된 모든 변인들이 다 포함되었다. 단 사회계층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선 1개가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본인의 사회계층수준에 따라 행복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과 동일하다.

이렇게 1개 경로선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검증모형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 제시된 검증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구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하였다(GFI=.997, AGFI=.985, NFI=.992, RMR=.014,  $\chi^2=.393$ ,  $p>.05$ ).

그림 4는 그림 3과 검증모형의 패턴이 동일하였으며, 단지 매우 일부 변인들간의 경로계수들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학업성취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계수들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른 경로계수들은 동일한 값을 보였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경로들의 패턴에서는 모두 동일하였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움극복효능감, 학업성취의 순서를 보였다. 학교급별에서 정서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로만 부적계수이고 나머지 모든 경로계수들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 4는 그림 3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 모형에 토대한 효과분석

그림 3에 제시한 검증모형을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6으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으나, 그것이 간접효과에 의한 영향력이고, 직접효과는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류층에 속하는 자녀들일수록 행복하게 지각하고 있으나, 상류층이라서가 아니라, 상류층에서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의 행복지각이 긍정적으로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상류층에 속해 있다고 해도,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



표 2. 모형 1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사회계층 → 정서적 지원	.20 ( 2.78)**	-	.20 ( 2.78)**
	→ 어려움극복효능감	.05 ( 2.19)*	.05 ( 2.19)*
	→ 학업성취	.02 ( .96)	.23 ( 3.22)**
	→ 행복	.09 ( 1.70)	.17 ( 3.38)***
학교급별 → 정서적 지원	-.17 (-2.29)*	-	-.17 (-2.29)*
	→ 어려움극복효능감	-	-.04 (-1.92)
	→ 학업성취	-	-.01 (- .93)
	→ 행복	-	-.10 (-2.24)*
월평균 수입 → 정서적 지원	-.12 (-1.61)	-	-.12 (-1.61)
	→ 어려움극복효능감	.06 ( .89)	-.03 (-1.47)
	→ 학업성취	.13 ( 1.80)	-.01 ( .01)
	→ 행복	.02 ( .39)	-.03 (- .59)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25 ( 3.55)***	-	.25 ( 3.55)***
	→ 학업성취	.06 ( .83)	.01 ( .62)
	→ 행복	.54 (10.26)***	.08 ( 2.92)**
어려움극복효능감 → 학업성취	.05 ( .63)	-	.05 ( .63)
	→ 행복	.26 ( 5.02)***	.01 ( .63)
학업성취 → 행복	.20 ( 3.78)***	-	.20 ( 3.78)***

( )는 t값

\*  $p < .05$ , \*\*  $p < .01$ , \*\*\*  $p < .001$

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라면, 사회계층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교급별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0으로 낮은 부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통계적으로는  $p < .05$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렇지만 효과의 강도가 낮으므로, 유의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직접효과는 없었으며,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와 동일한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것이 학교급별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한 간접효과가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수록 점차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고,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아서 행복지각이 낮고, 동시에 낮은 정서적 지원으로 인해 어려움극복효능감도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행복지각이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뿐만 아니라 월평균 수입의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학업성취에 대한 전체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당연히 직접효과나 간접효과도 모두 의미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청소년의 행복

지각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역동에 있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62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효과계수를 보였으며,  $p < .001$  수준으로 매우 의미 있게 나타났다.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접효과가 .54 ( $p < .001$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록 작지만 간접효과도 .08( $p < .01$ )로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 정서적 지원 그 자체로 인해 행복이 매우 크게 증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증진됨으로써,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도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자로 인한 간접효과는 전체효과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전체효과를 나타내었는데, 대부분이 직접효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가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도 긍정적인 값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효과는 모두 직접효과이며, 간접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국 청소년들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표 3은 그림 4의 검증모형을 효과분석한 것이다. 그림 4가 그림 3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표 3은 표 2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3에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2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직접효과는 의미 없는 것

표 3. 모형 2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사회계층 → 정서적 지원	.19 ( 2.65)**	-	.19 ( 2.65)**
→ 어려움극복효능감	-	.05 ( 2.11)*	.05 ( 2.11)*
→ 학업성취	.23 ( 3.19)**	.01 ( .82)	.24 ( 3.42)***
→ 행복	.09 ( 1.75)	.16 ( 3.33)***	.25 ( 3.74)***
학교급별 → 정서적 지원	-.14 (-2.01)*	-	-.14 (-2.01)*
→ 어려움극복효능감	-	-.04 (-1.74)	-.04 (-1.74)
→ 학업성취	-	-.01 ( .01)	-.01 ( -.79)
→ 행복	-	-.09 (-1.98)*	-.09 (-1.98)*
정서적 지원 → 어려움극복효능감	.25 ( 3.50)***	-	.25 ( 3.50)***
→ 학업성취	.05 ( .66)	.01 ( .72)	.06 ( .86)
→ 행복	.54 (10.30)***	.08 ( 2.82)**	.62 (10.98)***
어려움극복효능감 → 학업성취	.05 ( .74)	-	.05 ( .74)
→ 행복	.26 ( 5.06)***	.01 ( .73)	.27 ( 5.07)***
학업성취 → 행복	.20 ( 3.88)***	-	.20 ( 3.88)***

( )는 t값

\*  $p < .05$ , \*\*  $p < .01$ , \*\*\*  $p < .001$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계층은 정서적지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 그리고 학업성취 변인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 및 간접효과도 거의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였다. 낮은 부적인 효과계수를 보임으로써, 대학교로 갈수록 행복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상급학교로 가다가 아니라, 상급학교로 갈수록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고, 나아가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수는 표 2에서와 동일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서, 주위로부터의 충분한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에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었으나 효과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직접효과가 전체효과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직접효과도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정적인 효과계수를 보임이고, 전체효과의 대부분이 직접효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전체효과와 직접효과도 표 2에서와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행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정 월평균수입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부잣집 자녀가 더 행복한가?

내 집 마련이 일생의 목표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서민들은 ‘저렇게 부잣집에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하면서 부러워한다. 그러나 월평균 수입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에서 밝혀졌다. 즉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이나 높은 자기효능감 및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과 같은 변인들만 충족된다면, 월평균 수입의 정도는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쉽게 말해서 부잣집 자녀가 더 행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순히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성인의 행복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포함한 모형 1보다 오히려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된 모형 2의 적합도가 매우 미세하나마 좀 더 양호하였다. 모형 1이 변인 1개와 이에 따른 4개의

경로를 추가하고도 모형적합도가 더 좋지 않으므로, 구태여 복잡한 모형 1을 선택할 필요 없이 모형 2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청소년의 행복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무관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 결과를 보면 월평균 수입이 포함된 모형에서 비록 다른 변인들보다는 낮은 경로계수를 보였지만, 어쨌든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모형적합도가 의의 있게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모형 내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는 월평균 수입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포함된 모형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소년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정의 월평균 수입 변인은 성인들의 행복을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없는 변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즉 부잣집 자녀인지 가난한 집 자녀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행복감에 전혀 의미 있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성인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면 자녀들은 경제적인 책임이 없고 대부분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에 있으므로, 성인들보다 가정의 월수입에 대한 경제관념이 낮기 때문에, 성인들과 달리 가정의 경제수준이 행복감에 전혀 의미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지 않는 경향은, 삶의 질에 대한 토착 심리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록하게 하였을 때, 성인의 30.3%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에 비해 학생집단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 밖에 되지 않았으며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반응률이 훨씬 높음으로써 세대 간 차이가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6a). 이러한 결과들에 토대해 본다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수단적 가치가 있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맞벌이에 바쁜 부모들은, 과연 그러한 방식이 자녀의 진정한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상류층 자녀가 더 행복한가?

위에서 부잣집 자녀가 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상류층 자녀가 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한다면, 상류층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사회계층에 따른 행복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월평균 수입에 대한 설명과 같이 간단하지 않다.

위에서 표현한 부잣집 자녀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은 집의 자녀로서, 가정경제수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학력수준 또는 직업유형 등이 포함되는 훨씬 복합적

인 개념이다.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연구의 모형 1(그림 1 참고)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상관을 가정하였으나, 경로분석 결과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상관이 의미 없는 것으로 제외되었다(그림 3 참고). 그리고 사회계층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상관계수도 매우 낮고 의미가 없었다(표 1 참고).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다고, 즉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자녀들이 자신을 상류층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분석 결과들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계층 변인은 행복과  $r=.28$ 의 정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표 1 참고). 따라서 사회계층이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욱 행복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사회계층으로부터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삽입하고 경로분석을 하였을 때, 모형 3과 모형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검증모형 모두 사회계층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선이 의미 없는 것으로 삭제되었다(그림 3, 4 참고). 사회계층이 행복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상관관계(표 1 참고)와 경로분석(그림 3, 4 참고) 결과간의 모순적인 결과는 효과분석(표 2, 3 참고) 결과를 통해 정확한 이해의 통로를 찾아나갈 수 있다. 즉 사회계층에서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미 없지만,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계층에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선은 삭제되었어도, 정서적 지원 및 학업

성취 변인을 통해 행복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는 의미 있게 유지되어, 결국 전체 효과는 두 모형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층 자체가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적 지원이나 학업성취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은 상류층의 자녀라고 해서 하류층 자녀들보다 더욱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상류층 가정에서는 하류층 가정에서보다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바람직한 환경조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류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사회계층은 행복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지만, 정서적 지원의 정도가 높고 학업성취의 확률을 증가 시킴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행복지수를 높인다.

이러한 해석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다름을 밝힌 자료들(김일혁, 2006; 류방남, 김성식, 2006; 박영신, 김의철, 1998; 조선일보, 2009, 7, 22)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교육지원활동에 차이가 있고 대응방식이 다름을 밝힌 오경희(2008)의 지적과도 관련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사회계층과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결과들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들을 단순한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기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예컨대 박영신과 김의철(1998)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지위와 학업성취는 정적인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정적 관계가 직접효과보다는 여러 변인들을 통한 간접효과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에서 부모의 사회계층 자체가 자녀의 행복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주거나 학업성취를 촉진시켜 주는 방향으로 연결이 될 때만이, 부모의 사회계층은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월평균 수입과 사회계층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공부 잘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변인이 정서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건강하게 활성화시키고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만이, 학업성취와 행복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작용들이 가능하였다. 그동안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었으나(박영신, 김의철, 1998), 관련 변인들과의 보다 다양한 역동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계층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행복지각의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의 역동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행복에 대한 사회계층과 월평균 수입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결국 물질로서의 돈 자체 즉 월평균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계층이 정서적 지원 등으로 연결될 때만이 사회계층도 청소년 자녀의 성취와

행복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 상급학교로 갈수록 행복한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교로 갈수록 행복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더 받을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학교급별(초, 중, 고, 대)에 따라 행복에 대해 직접 경로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교급별은 한국 학생들의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경로계수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결국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4 참고). 또한 효과분석 결과에서도 학교급별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가 효과의 정도는 약하지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고, 효과의 값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을 점차 받아 가면서, 주위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정도가 감소하고, 이러한 낮아지는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도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 경우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개인차이를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시기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점차 성장함에 따라 정서적 지원을 받는 정도가 낮아지므로, 낮은 정서적 지원은 낮은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학생들의 행복은 가정환경(사회계층 수준에 대한 지각)과 학교환경(학교급별)에 의해 정서적 지원에 차이가 있고,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환경 중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영향이 있다. 학교급별에 따른 정서적 지원의 차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고, 동시에 학교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로 연결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지원의 대상은 부모 교사 친구로 압축될 수 있는데,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에서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6b).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정서적 지원의 감소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학교 현장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지만, 중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초등학교 시절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교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대학생이 되면 더욱 교수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는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모형에서 밝혀진 학교급별에서 정서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부적인 경로(그림 3, 4 참고)

는 한국의 학교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는 행복지각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한때 우리 사회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론 행복한 정도의 순서가 성적의 순서와 동일하게 완전히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행복은 성적의 영향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성적이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점은, 학업성취가 행복에 대해 직접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표 2, 3 참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이 학업성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성취압력을 가하고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체가 학업성취를 향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행동의 저변에는, 높은 학업성취가 행복의 증진과 연결되고 있음을 막연하게라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김의철, 박영신, 2008)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혈연으로 상호 연결된 존재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적 성취나 성공이 부모에게 대리적인 성취감을 제공하고(Park, 2008)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부모를 감동시키는 효도의 기본(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이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의 토착심리와 특별히 토착적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Bandura(1997)는 이러한 인간의 통제 능력을 확인하는 많은 실험 결과들을 제시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구체적인 기술로서의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꾸준히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확인되어 왔는데, 특별히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그림 3, 4 참고). 효과 분석 결과도 정서적지원이 행복에 대해 직접 효과만이 아니라 어려움극복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3 참고). 이러한 결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는 것이 행복의 결정에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 결과에 이어서, 행복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했다

는데 뜻이 있다. 그동안 성취를 최종적인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꾸준히 검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되어 왔다. 그동안의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 온 일련의 연구들을 ‘성취모형’이라고 지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최근에 행복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하여, 성취는 이러한 행복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 변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9). 이와 같이 행복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행복모형’이라고 잠정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권혁호, 이상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성취변인이 동시에 검증된 바 있으나, 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경로모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취가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는 모형으로 경로를 구성함으로써, 궁극적인 관심을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두고 성취는 그러한 행복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한 차이가 있다. 결국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에 있는지, 아니면 행복에 있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설정된 연구모형의 구성에 질적 차이를 유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러한 행복모형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결국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적인 기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상식처럼 흔히 회자되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 따랐다’. 결국 자기효능



감에 따라 행복이 영향 받는다는 말과 다른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이 모두 자기효능감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심리학적인 변인조차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삶의 경험을 통해 창조해 온 우리 선조들은, 지혜의 언어를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 학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은 무엇인가?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각에서 인간관계는 때려야 뭉 수 없는 핵심 변인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였을 때 행복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으로서 인간관계적 측면이 단연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그리고 대학생들이 과거 10대 및 현재 20대에서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생활경험으로 친구 및 인간관계를, 미래 40대 때에는 가족과 관련된 경험이 가장 행복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 또한 친구나 가족 등을 통한 인간관계가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 생활경험임을 보여준다(서은국, 2007).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이 부재하게 되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아칭, 2007).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서적 지원에 행복에 미치

는 영향력은 월평균 수입이 미치는 영향의 4.5배 정도로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도 역시 정서적 지원은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의 행복에 대한 전체 효과가 .62이고, 직접효과가 .54로서,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표 2, 3 참고). 물론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모형에서 가장 큰 경로계수는 정서적 지원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3, 4 참고).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계속 밝혀져 왔다.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 정서적 지원은 중요한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에서 따스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해와 배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문화가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Kim & Park, 2008)임을 재확인해 준다.

앞으로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에서만 아니라 온라인의 상황에서도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77%가 싸이월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자. 싸이월드에서는 친한 사용자끼리 일촌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데,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안녕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이에 누가 다녀갔나를 살피고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는 순간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박명순, 2007), 점차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맺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친구사귀기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라는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미니룸에서의 개인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려는 강한 인간관계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지향적 태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글을 맺으며 우리는 교포 2세로서 미국 사회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학업성취를 이룬 이형진 군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예일대를 다니고 있는 이형진 군이 그렇게 놀라운 학업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앓은 가슴 답답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SBS, 2008). 이민 1세대 부모의 뒷받침으로 부모가 원하는 높은 학업성취를 교포 2세 자녀가 이루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넘지 못하는 언어의 장벽, 사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의 차이, 그 아래 면면히 흐르는 문화의 장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성취를 이루고도 서로 나누기 어렵고 각자가 바다에 둘러싸인 외딴 섬처럼 서로 닿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영어로 말했을 때 부모가 충분히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나눌 수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는 것은 알지만, 정서적 공감대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정서적 지원의 결여는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는 고립된 섬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이민 1세대 부모와 교포 2세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아닐 것이다. 동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세대차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심리적인 괴리가 경험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성취 자체에서만 아니라, 그 성취를 함께 나누고 또한 성취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마음으로 아껴주는 과정 즉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교류할 때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서적 기반이 일치하고,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장 큰 관심은 학력 향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09년도 초 중등교육 분야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학업성취도 평가이며, 이미 2008년부터 전국의 초 6 중 3 고 1 학생을 대상으로 5개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학력을 강조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성적이 낮으면 만족한 학교생활이 거의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학업성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에게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박영신, 김의철, 2004b)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이 연구의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업성취가 가장 절대적인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과제에 대한 몰입이나 그 결과로 드러난 성취를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취와는 별도로 감사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등을 통해서도 행복은 창조된다.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나, 주위 사람들과 따스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여유 및 배려, 그리고 이러한 마음바탕은 감사하는 마음의 토양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의 성취만이 강요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풍토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부분적으로만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보다 다양하게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배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취했을 때만이 아니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역경에서도, 심지어는 삶의 다양한 충격 속에서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도, 심리적인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저력이 중요하다. 그러한 힘은 심리적 자원의 건전한 발달과 관계적 자원의 건강한 활용을 통해 생성되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성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청소년기에 경험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학업에서의 점수 몇 점을 더 높이는 것보다 일생을 살아가는데 더욱 기반이 되고 중요한 지혜를 습득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도 주요 정책:

초·중등교육 분야.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에서 2009, 7, 1 인출.

김의철, 박영신 (1999b).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 총서2.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비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6(1), 139~164.

김일혁 (2006).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3(4), 227~254.

류방난, 김성식 (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07-02.

박명순 (2007). 인터넷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 심리적 안녕감.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pp.127~145.
- 박아청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실태와 이를 위협하는 요소.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pp.1~16.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 5권.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6a).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6b).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a).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8b).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6(2), 109~141.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 우울에 대한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28.
- 서은국 (2007). 한국 청소년의 주요 생활경험과 행복감.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pp.17~28.
- 오경희 (2008).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통해 본 학부모의 인식과 대응방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5(3), 83~106.
- 장우석 (2007. 12. 11). 자녀교육과 투자이민, <http://blog.daum.net/immigrationattorney>.
- 장휘숙 (2009).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조선일보 (2009, 7, 22). '워킹푸어' 300만명 시대(3) 소득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개천에서 용 나던 '신화'는 끝. A1면.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Holman, H., & Lorig, K. (1992). Perceived self-efficacy in self-management of chronic disease.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p.305-323). Washington, D. C.: Hemisphere.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491~515. San Diego, CA: Elsevier/Academic Press.
- Lorig, K. (1990). Self-efficacy: Its contributions to the four year beneficial outcome of the arthritis self-management 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Chicago.
- Min, B. K., Park, Y. S., & Kim, U. (2002).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 analysi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 ~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SBS (2006). *그것이 알고 싶다*, 369회, 벼락부

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2006  
년 1월 14일 밤 10시 55분).  
SBS (2008).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 아침 2991  
회: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 청년 이형진.  
(2008년 10월 14일).

논문투고일 : 2009. 07. 12

1차 심사일 : 2009. 07. 22

게재확정일 : 2009. 08. 16

##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by focusing on psychological resource (as measured by self-efficacy), relational resource (as measured by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resource (as measured by family's monthly income).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on happiness is examin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y's monthly income, adolescents living in three different districts in Seoul (from working to middle to upper class districts) were randomly selected and interviewed in their home. A total of 190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male=83, female=107) completed the resiliency of efficacy scale developed by Bandura (1995) and emotional support and happiness scal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in addition to background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is relational resources. In other words, emotional support received from significant others was most predictive of happiness; more than 60 times the effect of family's monthly income, three times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wo times the effect of resiliency of efficacy. The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that predicted the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ts was psychological resource (i.e., resiliency of efficacy), which had 30 times the effect of family's monthly income. In addition resiliency of efficac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emotional support on one hand and happiness on the other. Third, those respondents who had higher academic achievement reported higher levels of happiness, which had 20 times the effect of family's monthly income. Fourth, family monthly income did not predict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Fifth, socio-economic status and school level did not have 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but had mediating influence through their influence on emotional support. In other words, those respondent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receive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which in turn increased their happin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is emotional support, followed by resiliency of 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dicating that those adolescents from wealthy families are not necessarily happier.

*Key words* : Korean adolescents, happiness,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family's monthly income, socio-economic status, school level.